

民俗과 教育

… 濟州道民俗을 中心으로 …

玄 容 駿

(濟州大學教授)

1

다 아는 바와 같이 “民俗”이란 “Folklore”의 譯語다. 이 말은 本來 民間의 知識이란 뜻으로서 民間의 俗信 慣習 口承文藝等を 指稱하는 말로 쓰이어 오다가 近來에는 社會制度 物質文化까지 이 속에 包括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民俗이란 文明文化 속에 殘存한 傳承文化 一切를 意味한다.

民俗은 文明 속에 殘存한 古代的 低級文化라 해서 우리는 마치 前代生活의 化石처럼 생각하기 쉽다. 勿論 民俗의 어떤 部分은 現生活과 遊離되어 死滅되어 가는 것도 있고, 몇몇 사람의 記憶에만 회미하게 남아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民俗文化가 우리의 現實生活에 生生히 살아 움직여 우리의 生活과 行動樣式을 規定하고 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 생각하면 나만이 이런 民俗 속에 適應된 生活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子弟들에게 無意識的이나마 이 속에 適應토록 期待 訓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民俗이 우리의 生活 속에 훌륭히 機能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教育에 있어서의 民俗의 問題는 輕率히 取扱해 넘길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 濟州도를 처음 訪問하신 분들을 위하여 濟州道 民俗을 概括的이나마 紹介하고 兼하여 이를 바탕으로 民俗과 教育의 問題를 잠시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2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濟州道の 民俗은 그 歷史, 地理의 環境에서 理解함이 가장 빠르리라.

毛穴穴에서 솟아난 三神이 碧浪國의 三神女와 더불어 開國했다는 이 濟州道는 巍巍한 漢拏山과 蒼蒼한 海岸으로 集約되는 섬이다.

이 獨特한 山野와 海岸은 道民의 生活과 文化를 낳았고, 本土에서 遠隔한 섬이라는 점은 文化의 同心圓的 擴散에 따라 自然 古文化形態를 殘存시키고 있다. 그래서 濟州道는 他道에서 볼 수 없는 特異한 言語 民

俗을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섬 中央에 1950米로 솟은 漢拏山은 急傾斜로 내려오면서 300餘의 小火山 <오름> 들을 거느리면서 四圍에 草原地帶를 이루었다. 이 草原은 古來로 좋은 牧場이어서 高麗屬國이었던 耽羅國時代에 元의 軍馬牧養地가 되어 約 1世紀동안 蒙古人의 壓迫에 呻吟하기도 했다. 現在도 이 牧養地가 十所場으로 나누어져 放牧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

넓다란 牧養地를 내리면 刻薄한 耕作地를 버리면서 섬은 바닷물에 잠겨진다. 聚落은 海岸線 둘레에 옹기종기 벌어져 200餘가 되는데, 約 30萬의 人口에 79%가 農業을 營爲한다. 그것도 農家戶數 56,776戶에 戶當 耕地面積 80a라는 極히 零細한 것이다. (64年 道統計) 이 80a도 맨 발뿐이어서 밭이 97.6%에 논이 2.4% 밖에 되질 않는다. 山野의 傾斜가 甚하므로 물이 땅속으로 숨어 海岸에 와서 湧出하며 河川은 비오다 그치면 乾川이 되고 따라서 논이 적은 것이다.

四面의 바다를 舞臺로 하는 漁業은 道總家口 7萬餘에 2萬餘家口 海女는 2萬4千餘名이 된다. 이들도 勿論 專業이 아니라 農業을 兼하고 있다.

이렇게 사는 道民은 外敵과 中央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며 살아온 歷史의 後裔들이다. 耽羅國의 命脈을 이어오면서 新羅때는 新羅에 朝貢하고 百濟 文周王 때부터 百濟에 方物을 바치고 高麗가 서면서 또 거기에 屬國이 되고, 23年間의 蒙古 隸屬, 거의 百年이 되어서야 元勢力을 根絶했지만, 거기에 닥치는 倭寇의 끊임없는 侵害, 이런 속에서 濟州島人의 生活 民俗은 날로 特性 지워진 것이다.

말하자면 濟州道民俗은 濟州라는 自然과 歷史環境에서 形成 保存된 生活文化 그 自體인 것이다.

이러한 自然環境과 民俗文化를 端的으로 表現한 말로 “三多” “三無”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 三多란 風多 石多 女多를 일컬음이고, 三無는 盜賊無 大門無 吃人無를 말한다.

濟州道는 果然 바람이 많다. 年 平均 風速 4.7m/s.

最大風速 36.1m/s 에 겨울의 暴風日數는 거의 月十五, 六日이나 된다. 이 風多는 濟州의 氣候의 環境條件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濟州道엔 돌도 많다. 濟州道를 처음 訪問하는 이는 먼저 집들이 모두 돌로 굵직 굵직하게 지어졌음을 보고 놀랄 것이다. 돌집에 지붕은 따로 덮고 굵은 바춘로 마치 바둑판처럼 얹어맨 것이 신기하게도 육중하다기 보다 참 고운 것이다. 風多의 섬이라 이렇게 굵은 줄로 매어 묶어야 하는 것이다.

돌은 建築의 材料일 뿐 아니라, 울타리의 材料도 되고 밭의 境界도 된다. 집집마다 돌울타리이요, 다랑이 다랑이마다 돌담으로 境界를 둘렀다. 墓자리들도 돌로 울타리를 쌓았고 濟州島 一圓의 牧養地 十所場마다 다 돌로 境界를 둘렀다. 그러니 放牧도 쉬운 것이다.

石多는 또한 石器類를 發達시켰다. 돌화로, 향로(石香爐), 빗돌, 돛도고리(돼지 먹이통), 십지어는 돌술 두경까지 發見이 된다.

이렇게 有用하게 利用되는 石多는 濟州의 土質이 刻薄하다는 地質的 條件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萬一六, 七月頃에 濟州를 찾아 들었다면 발발마다 밭 밟는 風景을 그림같이 볼 것이다. 좁씨를 뿌리면 이를 단단히 밟아 놓아야 發芽가 잘 되고 뿌리가 잘 붙어 조가 잘 자란다. 그러니 발발마다 마소를 10餘마리씩 쫓아 돌며 밟을 밟는 것이다. 빛나는 太陽 아래 四方에서 퍼지는 밭밟는 노래 소리와 함께 이 밭밟는 光景을 보는 것은 濟州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도亦是 風多 石多의 所産이라 解釋된다.

또한 濟州를 訪問하는 이는 農夫들의 그 特異한 服裝에 눈을 돌릴 것이다. 이른바 <갈옷>이라는 勞動服이다. 이것은 무명으로 만든 적삼, 잠방이에 잠물을 들여 햇볕에 바랜 것이다. 그러면 빛이 발광계 되고 잠이 뱉뱉해져서 질기고, 몸에 착 달라붙지 않아서 땀이 흘러도 좋다. 또 빨아도 금방 마르고 풀을 하지 않아도 좋고 빨수록 흙빛이 되어 더러운 줄을 모른다. 밭에 앉아 종일 엉덩이를 깔며 김을 메고 每日과 같이 흙과 더불어 사는 濟州의 農夫는 흰옷으로선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濟州의 運搬方法은 本土와 다르다. 머리에 이는 법이 없고, 지게도 없이 등에 지어 나르는 것이다. 따라서 婦女의 물동이기도 없다. <허벅>에 물을 길고 지어 날라다 진채로 항아리에 허리를 굽혀 부어넣는 것은 技術的이다. 婦女의 머리는 물건을 이지 않은 대신 모두 수건이 싸여진다. 그것도 그때 그때 머리에 싸 묶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맞추어 묶어 두었다가 外出할 때 모자 쓰듯 싸 나가는 경우가 많다. 바람이 많은 데서 이룩된 風俗이라 解釋된다.

이러한 風多 石多의 風土的 條件은 道民의 生活를 貧困으로 몰아 넣고 말았다. 매마른 土質에 戶當 80a 라는 零細한 農家, 거기엔 부지런만이 사는 길이다. “부지런 부잔 하늘도 못 막는다”라는 俗談을 되뇌이며 道民은 참으로 부지런히 일을 한다. 男子보다 女子가 더 勞動量이 많다. 勿論 밭을 갈거나 나무를 깨거나 하는 힘드는 일은 男子만이 하지만 밭밟기, 김베기, 거두어들이기, 타작 등 모든 농사일을 女子가 男子와 꼭 같이 한다. 뿐아니라 그들은 물김기, 방아찡기, 밥짓기, 길쌈짜기, 育兒等 家事를 도맡아 하고, 겨울의 餘暇엔 탄전 모자 망건 양태등을 엮어 팔아 용돈을 보태기도 한다. 또한 漁村의 婦女들은 男子가 낚아온 고기를 지게로 저다 파는 일을 도맡아 하고, 潛女服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미역 점부 소라등을 따다 파는 海女 作業도 해야 한다. 그들의 生活는 勞動이 全部라 할만치 기막힌 것이다. 왜 이럴까? 그렇게 일을 얹고선 살수 없는 風土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市場이나 밭이나 길거리나 보이는 게 女子이므로 “女多”란 말이 나온 것이리라. 統計上으로도 勿論 女子가 많긴 하다. 64年現在 30萬 人口에 女子가 약 2萬이 많다. 어느 해나 많은 것은 事實이지만 이 程度의 많음은 어디서나 있는 것이다. 女子의 活動性 勤勉性이 곧 女多임을 認識해야 한다.

이러한 道民의 餘暇 없는 勞動은 食生活를 素朴하게 만들었다. 人工과 時間이 所要되는 料理가 없다. 기껏해야 조, 보리밥에 나물국 된장이 고작인 것이다. 時間이 없으니 遊藝도 發達하질 못했다. 탈춤이니 그네니 강강수월레니 하는 民俗遊藝를 發見 못한다. 삶에 시달려 遊藝의 겨를 없는 탓이겠다. 濟州의 民俗놀이 는 오히려 宗教(巫俗) 속에 그대로 溶解되어 아직 宗教와 分離되질 못했다. 遊藝로 亨樂하기 보다 宗教로 信仰함이 生活上 切實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道民은 참으로 儉朴하고 勤勉하며 貯蓄心이 強하고 自主獨立精神이 濃厚하다. 名節이라 잘해먹어 때를 굶는 법이 없고 저녁쌀이 없다는 집에도 며칠 양식은 반드시 간직해 둔다. 적어도 一年 양식은 간직해 둔다는 이 놀라운 貯蓄心은 交通이 不便한 孤島의 濟州 祖上들로서 凶年에 살아나기 위해 없어서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해서 남에게 依存하지를 않는다. 長男이라도 入丈하면 別居獨立하고 老父母도 勞動할 수 있을 때까지는 獨立家庭生活를 한다.

이렇게 모두 부지런하고 自主的이므로 거지가 없고 또 도둑이 없다. 도둑이 없으니 大門이 있을 必要가 없다. 大門을 단단하게 해 닫는 대신 나뭇대 몇개의 <정낭>을 걸쳐두면 으레 主人이 없음을 알고 出入하질 않는 것이다. 三多와 三無는 濟州道民의 生活現象을

端的으로 表現한 말이다.

이러한 道民의 生活이 그대로 表白된 것이 濟州道民 謠다. 흔히 濟州道를 民謠의 섬이라 일컫지만 事實 濟州道엔 民謠가 많다. 많을 뿐 만 아니라 民謠의 오리지 날한 모습이 그대로 保存되어 있고 또 그 質에 있어 他道가 따르지 못할 것이다. 金榮敦教授에 依하면 近 2千首의 蒐集된 民謠中 勞動謠가 80% 強이며, 男女謠로 나누면 女謠가 78%나 된다고 한다. 勞動謠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民謠의 原初的인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며, 女謠가 그리 많다는 것은 女性의 勤勉을 代辯하여주는 것이 된다.

濟州道민에게 民謠 없는 勞動이 거의 없다. 밭을 갈리며, 방아를 찧으며, 海女作業을 나가며, 밭을 밟으며, 김을 매며, 타작을 하며, 꼴을 베며 흙덩이를 부수며, 나무를 깨며, 양태 망진 탕전을 하며, 아기구덕을 흔들며 모든 勞動에 民謠가 따르는 것이다. 그 內容들은 거의가 그네들의 摯絶하고도 悲痛한 生活의 表白이요, 勤勉과 自主와 삶에의 굳은 意志를 노래한 것이다.

濟州道엔 巫俗이 盛行하다. 그것은 多産, 治病, 死靈의 慰撫 生業의 豐饒등을 위한 呪術宗教的 儀禮다. 道內 神房(무당)數는 二百이 훨씬 넘으며 그들이 信仰하는 神은 크게 一般神과 堂神으로 나누인다. 前者는 天地 日月 農漁 疾病 生死 등 自然 人文事象을 掌管한 神이요, 後者는 村落의 守護神이다.

村落의 守護神인 堂神도 各村落마다 달라서 그 性格을 分析하고 보면 海神 農神 山神 風神 治病神 蛇神 등의 性格을 發見할 수 있다. 이런 것은 濟州道의 風土性과 生活相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이 되며, 巫俗이 그만큼 盛行하는 것도 生活의 어려움과 生活의 意志의 所産이라 解釋된다. 또한 그 儀禮行事는 歌樂 舞蹈 演劇 등이 未分化한 綜合形態의 原始宗教的 儀禮이어서 學問的 價値도 重大한 것이다.

3

濟州道民俗의 平面的 紹介를 모두 하자면 한이 없겠기 여기서 그치고, 이제는 個人生活의 主段階를 통하여 民俗과의 關係를 잠시 보기로 하자.

道民中 어떤 이는 出生前부터 <불도맛이> 라는 巫俗 祈子儀禮를 거쳐 孕胎한다. 孕胎한 農民의 子息은 大部分 <삼승할망>의 助産으로 出生한다. <삼승할망>이란 助産役과 産神에 對한 간단한 儀禮를 말은 神房(무당)이다. 아기가 낳으면 生後三日, 七日, 百日, 뉘등에 産神床을 차려놓고 간단한 儀禮를 한다. 또 每月 每三, 七日은 <할망날>이라 하여 産神에게 祈願한다. 자라나는 가운데 或是 높은 데서 넘어졌거나 놀랐거나 했을

때는 넋 낫다(넋이 나갔다는 뜻)하여 神房을 請해다 넋을 들이는 儀禮를 하여 魂의 原狀을 復歸시킨다.

이렇게 巫俗의 産神의 育成으로 자라나면 新年, 祭祀 名節의 祭法 禮法을 直接 間接으로 배우게 된다. “윙이자랑 윙이자랑”하며 아기구덕을 흔들고, 父母의 농사일을 돌본다. 마소를 먹이러 가며 말모는 소리를 익히고 밭을 밟으며 밭밟는 노래도 배우게 된다.

차차 生活해 나가는 사이에 모든 禁忌를 하나하나 배워 익히기도 한다. 그래서 移徙는 반드시 新舊間에 해야 하는 줄 알고, 便所를 아무때나 고치면 눈이 붓는 動土가 생기며, 간장도 아무때나 담그면 장이 고리고, 뱀을 함부로 죽이면 못쓰고 하는 모든 行動規範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言語生活도 一般인 것이다. 그들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人事보다 노는 윗어른에게 “놀았습니까? (노십니까?)” 하는 人사를 할 것이고, 밭에 가는 어른에게 “밭디 잘서마씀?(밭에 가십니까?)”하는 臨穡의 人事法을 배워 할 줄 안다.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하는 人사로선 별로 多情한 맛이 없다. 인사뿐 아니라 모든 言語生活이 濟州道 特有의 方言으로 몸에 배어 버린다.

또한 그들은 新年이 되면 <칠갈이> <맹감> 따위 巫俗 新年祭를 하는 것을 알며, 家屋을 新築했을 때 <성주풀이>를 해야 하는 것을 안다. 萬一 漁村이면 배를 新造해서 <연신>이란 儀禮를 하고 出漁時는 또한 該當 巫俗 儀禮를 해야 고기가 많이 잡힐을 듣는다. 그들은 이러한 宗教儀禮 때의 自身の 몸가짐과 行動規範을 배워서 그 民俗生活에 適應해지는 것이다.

成長하면서 그들은 김을 매고 해당된 民謠를 배우고 타작을 하며 타작노래를 부르게 되고 農耕 收穫時의 禁忌도 익히게 된다.

婚媾을 하게 되면 約婚의 過程 節次 婚式의 節次 첫날밤의 民謠 雜歌 불러늘기 등 行動樣式을 익히고, 父母에게서 財産을 얼마큼 물려받고 別居生活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게 된다.

그들은 人生의 死亡時의 行動規範도 지키게 된다. 絶命하면 魂을 부르고, 溫突의 아궁이를 막고 大小斂을 하고 部落民을 빌어 喪輿를 꾸며 매어가고 下棺하고 封土를 쌓고 하는 過程과 禮法과 그때 그때의 行動樣式을 익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濟州道의 民俗文化社會에 適應하는 人間이 形成되는 것이다. 이러한 民俗文化에 適應하는 人間은 濟州 民俗社會로 보면 標準人格者요, 萬一에 이에 適應치 못하는 人間이면 異常人이다.

異常人은 濟州社會에 生活할 수 없다. 濟州地域民俗社會의 生活規範을 모르고 그 生活의 類型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社會의 生活類型에 適應하는 標準人格을 만드는 것은 그 社會의 民俗文化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濟州道の 民俗文化는 住民을 그에 適應토록 出生時부터 拘束力을 가지고 不斷히 學習 訓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個人을 社會化한 個人으로, 社會가 期待하는 標準의 人格者로 만드는 것이다.

이 社會의 期待는 地域社會에 따라 그 類型이 다를 수 있다. 民俗이 다르기 때문이요, 生活類型이 다르기 때문이요, 生活에 있어서의 行動規範 樣式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사람이 濟州農村에 오면 그 民俗文化에 適應될 때까지는 異常人이요, 濟州사람이 서울엘 가면 얼마동안은 異常人이 된다.

이 異常人이 標準人이 되는 過程은 거기의 民俗文化에 대한 學習의 過程이다. 이 學習의 過程은 學校教育以前에 벌써 거치고 또 學校教育 途中에, 그 後에 끊임없이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學校教育을 마치면 거의 제 鄉土로 돌아가 鄉土生活을 함을 안다. 이들은 民俗文化 속에서 자라나고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俗文化는 우리의 一生을 通하여 教育作用을 하고 있고, 一生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教育에 있어서의 民俗의 問題가 결코

輕視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이다. 教育이란 그 社會에 適應하여 生活하고 開發해내는 人格者를 育成해내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 社會를 깊이 알고 이에 適應토록 또는 開發토록 能力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그 社會의 깊은 理解는 밑바닥의 民俗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教育은 너무나 民俗文化를 모르거나 度外視하고 있는 상 싫은 것이다. 都會나 西洋의인 데만 치우친 點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民俗을 모르는 鄉土啓蒙隊가 번번히 욕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나, 高等學校를 나오고 農村에 가서 異常人이 되어 살지 못하는 것등 다 여기에 一原因이 있는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民俗文化에 對한 깊은 理解를 가지고 學生들로 하여금 그것의 現代의 意義를 올바르게 判斷할 수 있는 能力과 그것을 繼承, 改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方面의 책을 많이 읽도록 讀書指導를 해야 한다. 그런데 遺憾된 일은 이 方面의 學生 讀書物이 너무나 적은 事實이다. 學生을 위한 民俗書籍이 多量 出版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도협 월보 원고 모집

本報에 掲載할 原稿를 會員諸位에게 널리 募集하오니 다음과 같은 內容의 論文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圖書館學 및 事業에 關한 論文
2. 圖書館界의 뉴스, 人事消息, 其他 消息
3. 圖書館과 相關되는 隨筆 (200字 原稿紙 30枚 內外)
4. 其他 本報에 掲載할 수 있는 內容의 것

(磨勘은 每月 15日 限)

編 輯 室

1966年度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國의 團體 및 個人會員께 부탁 드립니다. 第12次 定期總會에서 承認하여 주신 1966年度 事業을 國庫補助事業 9個, 自體事業 6個 合하여 15個種의 事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많은 事業을 成功裡에 目的을 達成하여 우리들의 權益을 높이고자 하는 共同 目標을 이룩 할 수 있도록 協助를 바랍니다. 一線에서 苦生하시는 會員들의 어려운 事情이 있을 줄 思料되오니 早速한 時日內에 會費를 納付하여 주시도록 最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 務 局